

행당 2-1 지구 성폭력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입장

지난 9월 30일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1-2지구의 강제, 폭력 철거 현장에서 행당동 1-2재개발 조합이 사주한 적준용역 소속 철거반원들이 강제철거에 항의하는 10여 명의 여성들에게 성폭력을 자행한 일이 발생했다. 경찰을 비롯한 공권력의 비호아래 많은 여성들이 백주대낮에 자신의 아이들 앞에서 성적 폭언과 함께 젖이 물리고 가슴과 음부를 쥐어 뜯기는 가

혹한 성적 폭력을 당했다. 행당동에서 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강제철거 과정에서 여성들에게는 무수히 많은 성폭력이 자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으로 거대폭력으로 인식되는 계급 모순, 공권력에 의한 폭력에 가리워져 여성의 문제로서 읽혀지지 못해왔다. 이제 우리는 행당동 사건의 피해 여성들이 도시빈민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있었다는 것과 더불어 ‘여성’이라는 또 다른 억압받는 집단에 위치하고 있었기에 이러한 성폭력이 가능했음을 말하고자 한다.

행당동 사건에서 우리는 폭력이 자행되는 공간에서 남성과

여성이 동일한 상황의 폭력에 노출되어 있을 때, 폭력이 행해지는 방식은 남성과 여성에게 다르게 구조화되어 나타남을 읽을 수 있다. 시위나 철거현장같이 물리적 폭력들이 난무할 때 여성을 통제하는 방법은 항상 ‘성폭력’인 것이다. 작년 전경들에 의한 한총련 여학생 성폭력 사건, 그리고 무수한 파업현장에서 있어왔던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성적 폭력들 또한 같은 맥락의 사건들이다. 언뜻 다르게 보이지만 그 안에 여성들이 당하는 폭력은 결국 여성들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무수한 성폭력들과 같은 연장선상에서 존재하는 것이다.

늘 누군가-한 남성-를 위해서 지켜져야 하는 여성의 성, '정조'라는 개념이 얘기하고 있듯이 여성의 성은 남성의 시점에서 구조화된 가부장적 사회안에서 남성의 소유물로서 빼앗고 뺏기는 관계만이 성립된다. 이 사건이 법적으로 '성추행'으로 규정되어지는 것, 이것은 바로 그러한 인식 아래에서 피해 여성들의 느낌이나 경험은 배제되기 때문이다. 행당동 사건의 피해 여성들은 단지 성기삽입만을 안 당했을 뿐 자신의 아이 앞에서 옷이 벗겨지고 젖이 물리는 가혹한 성적 폭력을 당했다. 그러나 남성의 시선으로 규정된 기존의 개념은 피해

여성들이 어떠한 정신적 폭력을 당했든 간에 ‘폭력’이 아닌 ‘추행’으로 바라볼 뿐이다. 그와 더불어 가부장적 권력의 집합체인 공권력은 이를 묵인하며 때로는 한총련 사건에서처럼 이용을 하기도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번 행당동에서 관계 공무원들과 경찰들의 비호아해 철거깽패에 의해 자행된 김 모씨(40,여)와 윤 모씨(43, 여)등 10명에 대한 성폭력을 동일한 상황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다르게 구조화되어있는 폭력이 있다는 것으로 문제제기하는 바이며 이는 ‘여성의 이름으로’ 절대 용인할 수 없음을 밝힌다.

또한 여러 학교 총여학생회와 여성 단체들이 함께 하는 ‘성폭력 연대회의’와 함께 적극적으로 수많은 폭력 현장에서 가리워져왔던 여성들의 경험을 읽어내고 공론화해 나갈 것이다.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질서

여/성/주/의

제 10대 총여학생회(준)